

광주대·호남대, 산학협력 강화·창업 생태계 조성 ‘맞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RISE 일환 지속가능 성장기반 마련
혁신주체 연결·자율적 네트워크 구축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최근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와 공동으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 산학협력 강화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대학, 창업기업 등의 혁신 주체들을 연결하고, 자율적인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대학 총장을 비롯해 RISE사업단, 산학협력단, 취창업지원단 관련 보직자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하상용 대표이사, 광주RISE센터 최은희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추진사업 소개와 함께 지역 내 특화 산업과 창업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산학협력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양 대학은 RISE 사업 수행대학으로서 창업지원, 기업 연계 교육, 현장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진 광주대 총장은 “대학 차원에서 창업센터



김동진 광주대학교 총장과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 등이 최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산학협력 강화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등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 투자와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창업 관련 지역 대학연합 구성체를 조직하고, 센터 지원의 창업 실무 강사진 지원 및 대학과 센터 공동 창업 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박상철 호남대 총장은 “RISE 사업을 통해 이제 대학은 교육을 넘어 지역의 산업과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혁신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두 대학이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에 적합한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과 산학협력 기반의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였다.

하상용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이사는 “대학과 센터의 장점을 모아서 창업지원 및 육성, 투자를 통한 창업 붐을 조성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대학 관계자는 간담회 이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대표 창업기업인 아이큐온(지능형 교통시스템 개발)과 엠애티브(VFX 기반 3D 매치 무브 기술 기업)를 방문해 실질적인 산학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엠코(주), 지역소멸 위기극복 협력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분야 인재양성·기술혁신 추진

전남대학교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기업이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사회적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체결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9일 전남대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술혁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산학 공동연구 과제 발굴과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통해 지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인재의 양성과 정착을 도모하며, 전문가·시설·장비 등의 역할을 상호 개방·공유해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기 협의체 운영과 기술 교류 위

크숍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방대학과 글로벌 기업이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공동 목표 아래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조와도 맞닿아 있어, 모범적인 산학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단순한 인력 양성을 넘어, 대학과 기업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제빵과, 인덕션 활용 조리도 ‘퍼펙트’

‘디포 인덕션 국제 요리대회’ 참가자 전원 입상 글로벌 역량 빛나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가 국제 규모 대회에서 화려한 수상을 자랑하며 글로벌 조리 역량을 뽐냈다.

동강대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는 지난달 인천 송도 컨벤시아 전시홀에서 열린 ‘제6회 디포인덕션(Dipo Induction) 요리대회’에서 참가자 14명 전원이 입상했다.

이 대회는 업소용 인덕션 전문기업인 디포인덕션 주최로 인덕션을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국제무대다. 심사위원도 독일, 스위스, 중

국, 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셰프들로 구성된 글로벌 경쟁력을 테스트했다.

동강대는 은메달 5·동메달 9개를 수확했다.

특히 정민혁(1년) 씨는 메인요리 부문에 출전해 서양의 메인요리에 한국의 풍미를 살린 요리와 현대적인 플레이팅으로 전체 2위에 올랐다. 정 씨는 오는 10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내 WACS(세계조리사회연맹) 요리대회 출전 경비를 지원받는다.

오명진 학과장은 “동강대 융복합쿠기클래스실에는 지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인덕션을 활용한

실습실이 구축돼 다양한 조리법으로 실력을 쌓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글로벌 무대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강대는 지난달 30·3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광주 셰프챌린지(GWANGJU CHEF CHALLENGE)’에서도 출전 학생 21명이 전원이 수상했다.

백승우(1년)씨는 Asian Meal Duo (Noodles and Rice) 부문에서 한식과 일식의 절묘한 퓨전 요리로 1위를 차지, 광주시장상을 받았다.

김현송(1년·여)씨는 Fusion Pasta Dish 부문에서 한국식 만두국의 요소를 이탈리아 요리에 접목한 ‘만두국 라비올리’를 선보여 1위, 이정현(1년) 씨는 ‘사골 크림 파스타’로 독창성과 풍미를 인정받아 3위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전남교육청, 학교운동부 ‘칭찬 캠페인’ 호응

청렴문화 정착·공교육 신뢰도 제고
5월 우수지도자에 김효수·김광호씨

전남교육청이 학교운동부의 청렴 문화 정착과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칭찬 캠페인’이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이 캠페인은 학생 선수를 지도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청렴하고 모범적인 행동’과 ‘감동적인 교육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해 어른의 역할이 학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지 공교육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진행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주제로 나르고 있다.

매월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도자 2명에게는 포상이 이뤄지며, 연말에는 누적 우수 지도자에게 별도의 추가 혜택을 예정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벌교초등학교 김효수 육상지도자, 동광양중학교 김광호 씨름지도자가 우수 지도자로 선정됐다.

우수 지도자에 선정된 김효수 지도자는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운동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계속 해온 것일뿐”이라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정직하게 지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초·중·고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직접 추천하는 이 캠페인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청렴한 지도자상 정립, 학교운동부의 체질 개선, 긍정적인 스포츠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교육적 지표를 만들고 있다.

지도자의 청렴한 언행은 곧 학생의 인성과 태도로 이어지며, 학교운동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동광양중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생들이 씨름 훈련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학교운동부는 단지 운동기술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미래 체육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현장”이라며 “캠페인을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청렴성과 헌신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며 전남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학부모·교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청렴문화 확산에 주력하며 공교육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8년 연속 선정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회의가 주관하는 ‘2025·2026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8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고교교육의 내실화와 대입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조선대학교는 2008년 사업 도입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연속 선정되는 전국 유일 수준의 지속성과 신뢰를 입증했다.

올해는 전국 92개 선정 대학 중 16개 대학에게만 주어지는 자율공모사업(대입정보 제공 확대 분야)에 호남지역 대학들 중 유일하게 선정돼 추가로 2억 5000여만원의 성과보상금을 확보했다. 이는 조선대학교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정확하

고 신뢰도 높은 대입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조선대는 꾸준히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고교 학점제 지원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다양한 대상의 입학정보 제공을 지원해왔으며, 2025년 사업에서는 특히 고교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지역 맞춤 진학 지원을 위한 모델을 통해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조선대 조운형 입학처장은 “선정된 본 사업과 자율공모사업으로 ‘We’ll 우리까지 대학가자’ 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입 정보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과 상생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1000ml x 3병(3,000ml)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
■유통전문판매원 : ㈜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